

“모두 참사람 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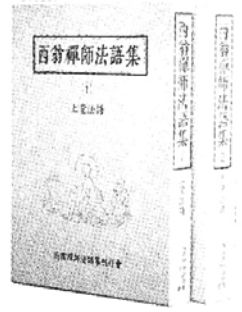
서용선사 법어집 1·2권

“참사람이란 현재의 한 생각이 무한하여 이성적인 선악과 생사,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일체를 초월하여 무애자재합니다. 무한히 자기를 부정하고 무한히 자기를 창조하는 진정한 뜻에서 참사람이란 자체마저 우주 밖으로 추방해야 합니다.”

조계종 제5대 종정을 역임하고, 현재 백양사 고불총림 방장으로 주석하고 있는 서용선사의 법어를 모은 (서용선사법어집)(민족사)은 우리 모두가 진실한 자기, 즉 ‘참사람’을 찾을 것을 주창하고 있다. 법어집은 남자들을 위한 1권 ‘상당법어’와 일반인들을 위한 2권 ‘대중법어’로 구성돼 있다.

제1권 ‘상당법어’는 전국 여러 선원의 조실로 주석하면서 선원수좌들을 위해 결재나 해제 때 법문한 것을 실었다. 서용선사 특유의 간결하면서도 패부를 찌르는 단평(短評·조사스님들의 송구)에 대한 간결한 평(評)과 착어송구(著語頌句·조사스님들의 송구)에 계승을 붙인 것은 임제가종의 존엄함과 스님의 걸림없는 경지가 조화를 이루면서 환구법문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제2권 ‘대중법어’는 대중설법을 수시로 녹음해 정리한 것으로, 현대 과학문명의 위기극복은 인간의 근원적 모습으로서의 ‘참사람’에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다. 동서고금의 철학사상을 모두 회통하여 조사선으로 귀일시킴으로써 선을 현대인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한 것도 특징이다. 어려운 철학 및 불교용어는 주를 달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작은일부터 실천을”

우룡스님 법문집 '불교신행의 주춧돌'

“스님, 어떤 삶이 좋은 삶입니까.” 한 신도의 질문에 우룡스님은 밤낮으로 나무아미타불만 염송하며 청빈한 삶을 살다 입적한 하담스님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다. 그리고는 “아무 가진 것도 없지만 자기 마음 속에 무엇인가를 간직하고 혼자 누리는 기쁨 속에 살다가 가신 분은 행복한 삶을 산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라고 되물었다. 되물을, 무엇을 찾으라는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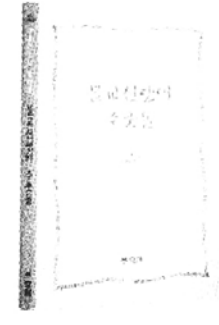
우룡스님(울산 학성선원 조실)의 법문집 (불교신행의 주춧돌)(효림)은 신행생활에서 겪는 갖가지 의문들에 대해 또 다른 의문을 던진다. 그러나 그

물음은 나침반처럼 한 방향을 가리킨다. 행복한 삶은 반드시 기초가 튼튼해야 하고, 그 기초는 불성을 주춧돌 삼은 바른 신행생활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으로.

하지만 거창한 말로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하는 식의 법문은 아니다.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에서부터 불자다운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운다.

돈과 명예, 권력에 대한 욕심, 게으름, 응어리, 망상(妄) 등 삶의 모든 굴레에 대한 다양한 일화와 고사를 통한 가르침이 통쾌하다.

삶을 올바르게 직시하고, 삶의



뿌리가 무엇이며, 삶의 뒤편에 무엇이 있는지 제대로 보아야만 올바른 신행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opia.com)

해외신간

보살의 원형



보살(菩薩)은 어떤 모습일까. 미국의 불교철학자 다니엘 링본이 고대 불자들에게 정신적인 모범을 보여주었던 보살의 모습을 현대의 위인(偉人)들에게서 찾고 있는 책 (보살의 원형·Bodhisattva Archetypes: Classic Buddhist Guides to Awakening and Their Modern Expressing)을 발간했다.

이 책에서 “고대의 보살상은 현대인들이 세간의 삶을 가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한 다니엘은 아인슈타인, 제임스 조이스, 밥 딜런, 테레사수녀, 달리아라마 등 20여명의 삶과 경전에서 나타난 보살의 수행, 조상(彫像), 심상(心像) 등을 비교하고 독자들에게 현대적인 보살의 상(像)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Penguin U.S.A.刊. (p.p 320, ISBN 0140195564)

죽음이 가르친 교훈



우리가 죽음이 버려진 곳에서 있을 때,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또 그동안 익어온 인식과 가치관들을 바꿀 수 있을까? 호스피스를 운영하고 명상을 지도하고 있는 로드니 스미스가 내놓은 (죽음이 가르친 교훈(Lessons From the Dying))은 각 장마다 죽음을 대하는 명상적인 글쓰기를 통해 죽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을 새기고, 이 교훈을 건강한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서 로드니는 “우리 스스로 자신을 소멸시킬 수 있을 때, 타인과 진정한 유대를 나눌 수 있고, 조화로운 존재로서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다”며 죽음이 남겨준 교훈을 통해 삶의 참사실을 보여준다.

Wisdom Publication刊. (p.p 224, ISBN 0861711408)

불경 현대감각으로 재해석

김장호씨 '...불경이야기'

불교 경전은 인생의 진리와 철학, 그리고 우주의 섭리가 모두 들어 있는 지혜의 보그(寶庫)다. 그러나 그 양이 너무 방대해 섣달 손이 내밀어지지 않는다.

김장호씨(해의출판정보 대표)가 펴낸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채우는 불경이야기)(문화사랑)은 불경을 현대감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읽는 재미를 통해 불교의 진리와 향기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형태의 경전해설서다.

이 책의 특징은 전체 내용을 '진실된 가르침을 받다' '커다란 깨달음을 얻다' '열반에 이르는 길을 가다' '비유에 들어 있는 참뜻을 읽다' 등 4개의 주제로 분류하고 각 주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설화들을 수록한 후, 이들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경전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 예를 들면 '진실된 가르침을 받다'에서는 (자타카)에 나오는 '여우왕' '음탕한 왕비' 등의 설화를 얘기하면서 (자타카)의 세계를 설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법화경) (금강경) 등 30여 주요 경전만을 다뤘지만 불경의 세계를 짐작하기에는 충분하다. 마지막에는 유명한 불교 문학 작품들을 함께 수록해 인구가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도 살펴본다.



반가사유상-석굴암-해중릉 발견 경위·사상 등 고찰

황수영 전집-한국의 불상(하)

한국 고대조각사의 최고봉을 점하는 반가사유상과 석굴암에 관한 모든 것을 보여주는 (황수영전집-한국의 불상(하))(해안)이 나왔다.



지난 3월 나온 (한국의 불상(상))이 금동불에 관한 것이었다면, (한국의 불상(하))는 반가사유상의 조성시기와 시대별 특성과 그 속에 담긴 사상을 고찰하고 석굴암이 우리 민족의 상징임을 입증해내고 있다.

제1부 '반가사유상' 편에서는 삼국시대 말기부터 통일신라 초기, 그리고 신라에서 주로 반가사유상이 조성됐음을 추적하면서 삼국 반가사유상의 다양성과 국보 78·83호 반가사유상의 발견 경위와 제작 주체를 둘러싼 논쟁을 담았다. 세계문화유산인 석굴암을 다룬 제2부에서는 1962년부터 3년간 황박사의 책임하에 실시했던 석굴암 수리공사 전말과 조각의 불교 미술사적 의미, 탁월한 과학성 등을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 3부에는 세계 유일의 인공 해중릉으로 평가되는 '문무대왕 해중릉'에 대한 저자의 논문 3편이 실려있다.

한명우 기자

“집착 버릴때 무의세계”

김용오 시집 '멀티오르가슴'



오르가슴(orgasme)의 사전적 의미는 '성교할 때의 쾌감의 절정'이다. 그러나 진정한 오르가슴은 쾌락을 넘어서고 어떤 자리, 너도 없고 나도 없는 절대무의 세계요, 너도 있고 나도 있는 절대유의 세계라고 김용오 시인(53)은 말한다.

그의 시집 (멀티오르가슴)(시문학사)은 다 벗어 버리고 또 버려 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곳을 열게 되리라는 기대마저 새로운 또 하나의 집착임을 말한다. 그리고 그러한 집착마저 다 버릴 때 비로소 진정한 무의 세계에 이를 수 있음을 노래한다. 일반에게는 선경적인 '오르가슴'이라는 단어가 그에게서 깨달음의 세계, 즉 부처님의 세계임을 보여준다.

시 제목은 모두가 '오르가슴'이다. 하지만 그의 모든 시에는 '덧없는 한세상 저 텅빈 허공에 등을 기대어 질림없이 사는 법을 배우고 가야 한다'는 부처님을 향한 마음이 조각조각 흩어져 있다. 그에게 '오르가슴'이라는 행성은 모두가 도달해야 할 '필연의 땅'이자 '깨달음의 땅'인 것이다.

...참 행복한 사람 나무불스님 지음 깨달은 자의 죽음 인종권 지음

“세속 떠난 무욕의 삶 이렇구나”

(세상에서 참 행복한 사람)은 경북 성주군 천상산 김상도량에서 '소 먹이는 일'을 배우며 이웃한 사람들과 자연과 함께 사는 나무불스님(법명 지혜)이 생활의 단상들을 모은 산문집. 청정한 삶에 안이 없고, 마음을 비우면 선악이 따로 없음을 몸조리면서 청빈하고 선하게 살 것을 얘기한다. 그리고 자유로운 삶을 꿈꾸지만 부질없는 욕망을 놓지 못하고 고뇌하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눈길에 평온을 준다. '세속을 떠난 무욕의 삶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드는 책. (민족사, 6천원)

부처님을 만난 인도여행기

“붓다는 죽었다. 아무런 군더더기가 없다. 붓다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어쩌면 여기에 있는지도 모른다.”

가톨릭대학을 다녔던 인종권씨는 대학시절 잠시 떠난 인도여행에서 불교를 그리고 부처님을 만났다. (깨달은 자의 죽음)은 인도와 불교의 모습을 담은 안씨의 인도 여행기. 깨달음의 땅 부다가야에서 열반의 땅 쿠쉬나카르까지 인도 8대 불교성지를 여행하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죽는다는 사실을 자신있게 말했던 붓다는 정말 위대한 스승임이 틀림없다'는 것이다. (문리, 7천원)

“실상문학” 봄·여름호

부산불교문인협회(회장 채낙현)가 발간하는 (실상문학) 봄·여름호(통권 11호)가 나왔다.

이번 호는 특집으로 범어사 벽파스님과의 대담과 함께 '산사의 향기를 찾아 태백산의 절경'(정관스님), '시조로 엮는 금강경-머무는 곳 없이 네 마음 흘러라'(심종선)를 실었다. 또 30여편의 시·동시·시조 등과 9편의 수필을 담았으며, 97여를 부산불교문학세미나 발표논문에 대한 평론도 수록했다.

◇ 금주의 베스트셀러 10

책방 역사인물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산에는 꽃이피네	법정	동학나라
2	생할숙의 기도법	일타	효림
3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가지	성우·지연	민족사
4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김현준	효림
5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김홍근	여시아문
6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윤윤순	신우당
7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김종서	여시아문
8	똑똑똑 불교를 두드려보자	윤원철외	시공사
9	불교입문	조계종원부	조계종출판사
10	명상체재여행	박석	모색

구입문의: (02)737-0695

前 조계종 5대宗正, 現 백양사 古佛叢林 方丈

西翁禪師法語集

1권 上堂法語 2권 大衆法語

드디어 큰스님의 법어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불교 曹溪禪宗의 正脈으로서 임제기풍의 明眼宗師이신 이 시대의 대선지식, 西翁큰스님 법어집 출간!

- 1권 상당법어는 큰스님께서 30여 년간 제방선원의 조실로 계시면서 남자들에게 수선 참구의 지남으로 보여 주신 격외도리의 활구법문으로서 知解思量이 완전히 끊어진 本地風光의 참소식이며,
- 2권 대중법어는 현대문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역설하신 것으로 서양문명에 의해 상실된 인간의 근원적 참모습을 각성케 하신 법문입니다.

西翁禪師法語集刊行會 編
46배판 고급양장 / 전2권 / 값 38,000원

민족사 종로구 청진동 208-1 전화(02)732-2403~4

불·자·들·의·필·독·잡·지

불교와 문화

BUDDHISM & CULTURE

1998년 여름 호 제6호 (통권 26호)

지성중계 / 불교방송 교리강좌 회향법회 박성배 교수에게 듣는다 ㉞ 불교, 어떻게 믿고 닦을 것인가

칼리화보 / 사자로 보는 성보기행 ㉞ 북장물에 담긴 서원

불교계단 ㉞ / 우리의 교단체계, 이대로 좋은가 조계종의 교단제도와 운영의 문제 한국불교의 교단체계와 세계불교국가의 예 조계종 제도개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문화평 / 음악(교성곡 용성) 미술(정비파 석굴암 관후전)

인터뷰 불교 / 달마가 인터뷰로 간 개뉘었?

불교문화의 현정 / 팔만대장경 주제음악 발표회

현대인을 위한 새로운 수행법 '이화타' 프로그램과 사람이 사는 길

산속古談 ㉞ / 부처님의 손길처럼 떠스한 성철 큰스님

특집 **세태분석 / 미스터리물에 대한 불교적 해석**

환생, 귀신, 불가사의한 체험에 대한 불교적 해석 불자로서 풍수사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길 수백 불! 미신인가, 과학인가 점과 사주에 대한 불교적 해석

특별기획 / 세계의 사상가와 불교 ㉞ **동서양의 정신세계를 나누는 보르헤스** 그의 삶, 그리고 불교와 포스트모더니즘을 조망하고 주요한 작품 몇 편을 소개한다

세계의 불교 **싱가폴 불교의 현상**- 윤희의 길, 인간의 길

한국의 미 ㉞ / 한국의 종이(韓紙)

생명과 불교 / 뇌사, 장기이식에 대한 불교의 비판

생태담사기 / 생태적 관점에서 본 고승인 개암사

고전선학 / 백과 스님과 추사 김정희의 對論

박한영의 수필 한 편과 편지(추사의 諺白成書)

발굴 / **홍인표 거사의 열불왕생법** 장도경, 논. 집 / 역사여래, 지성모산

불교의 문화 정가국목 신형 문의 Tel. 02-719-1855, Fax 02-719-5052